

“문화로 행복안 삶”



2018년 업무계획

2018. 3.

(재) 국립극단

[목 차]

I. 단체 주요 현황	3
II. 2017년 평가	4
III. 2018년 경영 전략	9
IV. 2018년 주요업무계획	10
1. 제작역량 강화로 공연 수월성 제고	10
2. 연극인 인재양성 및 연극저변 확대	12
3. 관객개발 강화 및 청소년극 접근성 강화	13
4. 국내외 연극계와의 교류 활성화	14
5. 창의적 조직역량 강화	15

I. 단체 주요 현황

□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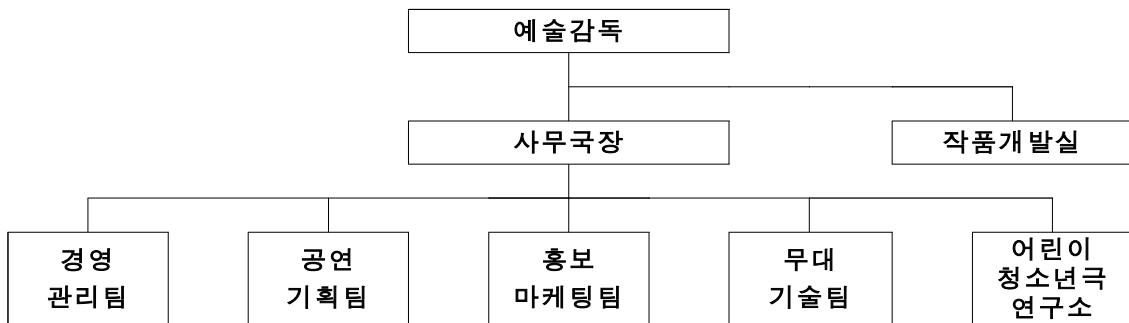
-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 선도
- 국민들의 연극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 주요 연혁

- 1950. 4.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창단
- 2010. 6. 재단법인 국립극단 설립
- 2015. 4. 명동예술극장 통합 운영

□ 조직 및 인원

- 조직 : 1국 4팀 1연구소 1개발실



- 인원 (2018.03.15 기준)

구 분	계	예술감독	직원	단원
정 원	66	1	35	30
현 원	50	1	31	18

※단원은 시즌단원으로 운영(연간 시즌계약) / 비정규직 24명 제외

- 임원 : 이사장 1(김상헌), 예술감독 1(이성열), 이사 4, 감사 1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예 산	6,502	6,403	7,204	13,436	12,185	12,380	12,030
(국고보조)	5,232	5,516	5,716	9,216	8,991	8,991	9,061
(자체자금)	1,270	887	1,488	4,220	3,194	3,389	2,969

II. 2017년 평가

1 2017년 주요 성과

□ 우수연극 제작으로 관객과 소통 확대

- '17년은 고전과 명작, 해외한인작가전, 창작극, 레퍼토리, 청소년극을 포함한 17개 작품을 고르게 배치하여 관객에 소개
- 동시대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찰하는 기획으로 재외한인작가의 신작 5편을 소개하여 국립극단 장르개발 다변화 및 프로그램 기획을 강화, 고전희곡<메디아·1984>을 각색하여 현대화하고, 젊은 예술가 역량 지원 및 창작신작을 개발하여 상연하는 등 우수 레퍼토리 작품개발에 주력
- * 전년대비 신작·창작극 비율 증가 (5편→9편, 29.4%→52.9%), '16년 <작가의 방>에서 선정된 젊은극작가전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또> 공연
- 우수레퍼토리를 통해 선보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의 재공연과 지방공연을 추진하여 레퍼토리 공연 확대 시도

□ 국립극단 출범 이후 최대 유료객석점유율 실현

- '10.6월 개관, '15.4월 기관통합 이후 꾸준한 유료객석 점유율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립예술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
- 작품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객석점유율 87.5%, 유료객석점유율 77.6%를 기록

제작공연기준	2014	2015(통합)	2016	2017
공연편수/횟수	17 / 209	17 / 282	18 / 322	17 / 305
총 관람객수	46,219	76,840	71,780	62,635
유료객석점유율(%)	53.9	68.8%	75.0	77.6

* 2017년 국립극단 수상실적

- * 2017 가지 (동아연극상 작품상), 2017 나는 살인자입니다 (동아연극상 연출상, 무대미술상), 2017 가지, 광주리를 이고 나가시네요 (동아연극상 연기상 2명),
- * 2017 1945 (공연파이론 작품상)

□ 젊은 극작가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건인

- 창작극·신작개발 활성화를 위해 <작가의 방>을 '16년부터 운영하여 극작가 네트워크 확대 및 젊은극작가 양성 및 작품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추진
 - 젊은 극작가 그룹(10명)을 선발하여 정기모임을 통한 창작토론, 강연, 낭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체계 관리를 통해 공연 후보작을 발굴
- * 17년 극작가 10명 참여, 낭독공연을 통해 호평받은 작품을 차기년도 시즌 후보작으로 고려

□ 우수작품 초청 및 교류를 통한 해외협력 확대

- 지난 해 프랑스 오를레앙연극센터와 공동제작한 <빛의 제국>의 프랑스 초청으로 프랑스 공연을 추진, 우리연극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해외무대 진출 확대 모색
 - * <빛의제국> 17년 프랑스 파리 외 2개 도시 18회 공연 추진
- '2018 평창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한·중·일 문화올림픽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일 대표 연극 레퍼토리 교환공연” 추진하여 동북아 연극계의 안정적 교류채널 확보 및 국가 간 문화이해 증진
 - * 일본 도쿄예술극장 <밖으로 나왔!> 서울공연 '17. 11월 6회 진행

□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우리연극 지원 확대

- 민간극단 제작의 우수공연을 초청하여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연극계의 상생을 도모하고 국립극단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우수작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민간극단과의 협업을 통해 작품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증진하고, 민간극단 기획력 제고
- * 17년 실적 : 극단 목화<로미오와 줄리엣> 22회, 장우재 연출·작<미국아버지> 18회 공연 / 2편 객석점유율 84.3%, 유료점유율 73.3%

□ 시즌단원제 시행 3년, 단원들의 창작역량 지원

- 시즌단원 운영으로 선발된 배우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제공·지원하고 국립극단 배우 인력기반을 마련하여 작품의 완성도 향상 도모
- 단원대상의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실시 등으로 예술적 소양 함양을 도모하여 연기력 향상 지원

* 주요실적 : '15년 첫시행 17명 ⇨ '16년 20명 ⇨ '17년 20명

□ 연극인 재교육 내실화 및 관객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 연극현장에서 활동하는 신·중진 연극인들에게 집중적이고 내실있는 '단기 워크숍', '차세대 연극인 스튜디오', '인문학 강의' 등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극인의 창작역량 강화 지원
- 극장을 찾고 즐기는 '백스테이지 투어'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관람 전후 '공연읽기', '영상해설', '예술가와의 대화' 등을 지속 운영하여 일반관객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명동문화마당의 야외공연(봄,가을)을 통해 명동지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주요실적 : ('17년) 18개 프로그램 10,526명 참여(수혜)

□ 미래관객 개발 노력 및 국립단체로서의 사회적 역할 수행

- 미래관객인 청소년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통해 기업후원을 통한 "푸른티켓"을 운영하여 청소년 연극관람 접근성 향상 등 극단 자체수입 구조개선 활용

* 주요실적 : ('15년) 6,823명 / 2억원, ('16년) 9,356명 / 2억원, ('17년) 14,458명 / 3.6억원

- 다문화 가정, 복지관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객석나눔'의 실천으로 국민 연극예술 향유에 기여

* 주요실적 : ('15년) 3,535명, ('16년) 3,445명, ('17년) 3,477명

□ 국립극단 중기발전계획 수립

- (현황)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통합 후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나며 유료객석점유율의 점진적 향상* 등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통합 3년차를 맞아 국민(관객) 및 연극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극단 공공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목표 설정 필요

* '14년 60% ⇨ '15년 65% ⇨ '16년 75% ⇨ '17년 77.6%

** '17. 3월 국립극단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완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대응방안) 연극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8년 5월까지 국립극단 중기발전계획 수립

□ 대표 레퍼토리 확보

- (현황) 국립극단은 1년 평균 17~18편을 제작, 그 중 재제작 작품(레퍼토리)은 평균 1편에 불과
- 우수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다량으로 지속 발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고, 만들어진 우수작품이 1회성으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음

레퍼토리 현황	레퍼토리 제작 편수
2013년 作 <3월이 눈>, 2015년 作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2016년 18편 중 1편 2017년 17편 중 1편

- (대응방안) 레퍼토리 제작 편수 확대('17년 1편 → '18년 3편 이상)
- 극단 창작작품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 작품을 선정, 재제작을 통해 국립극단 대표 공연작품 확보 및 공연제작 효율성 제고

□ 차별화된 작품개발 시스템 구축

- (현황) 현재 국립극단은 작품제작 중심으로 민간극단 등과의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국립극단만의 공공성 높은 프로그램 발굴 필요
- (대응방안) 신작 개발 및 작가 육성을 위해 희곡 수집과 작품 선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드라마투르기실 신설
 - 이와 함께 실험성과 예술성이 뛰어나지만 대중성이 떨어지는 신작, 국내 연극 생태계에 새로운 자극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기획·제작 비중도 확대
- * 영국 '로열코트극장'은 상시적으로 희곡을 접수받아 전문인력(극작술 연구가)을 통해 작품을 선정하고, 신진극작가 육성 및 새로운 희곡 발견에 기여 중

□ 민간 연극인들과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확대

- (현황)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의 여파로 국립극단의 신뢰도에도 타격, 극단의 정체성·작품선정 등에 대해서도 연극현장의 의견 분분
- (대응방안)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연극인들의 자문, 의견 도출의 장을 마련하여 연극계와의 소통 확대
 - (소통통로 확대) 작품평가위원회 지속 운영(연 2회) 및 연극인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신규 설립·운영
 - (민간극단과의 협업) 민간 우수작품 기획초청
(' 16년 1편 → ' 17년 2편 → ' 18년 2편 이상)

□ 지방공연 확대

- (현황) 현재 국립극단은 서울공연을 중심으로 운영
- (대응방안) 우수작품의 지방공연을 점진적으로 확대, 전국민을 위한 국립극단으로서의 위치 재정립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 * ('17년) 2편 5개 지역 9회 공연 → ('18년) 3편 6개 지역 12회 이상 공연

II. 2018년 경영 전략

1 추진목표 및 전략

- ◆ 창작극 개발 주력, 우수레퍼토리 확대로 국립극단 공공의무 수행
- ◆ 연극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 ◆ 공연장별 특성화로 국립극단의 정체성 재확립

미션 **우리연극의 내일을 선도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국립극단**

비전 **한국적, 현대적, 세계적 공연콘텐츠 개발**

목표

- 유료객석점유율 제고 : 77% → 78%
- 연극지변확대를 위한 관객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 : 7천명 → 8천명
- 창작극 개발 2편⇒4편, 우수레퍼토리 확대 1편⇒4편

전략

**우수연극
제작**

**연극지변 확대
및
관객개발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창의적
조직역량
강화**

추진과제

1. 제작역량 강화, 수월성 제고
2. 창작극 개발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3. 연극계 소통채널 확대

1. 연극인 전문교육 내실화 및 일반관객 프로그램 활성화
2. 유료관객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1. 국내 연극계와의 교류 활성화
2. 지역 문화격차를 해소를 위한 지방공연 확대
3. 해외 교류협력 강화

1. 새로운 경영전략체계 구축
2. 고객만족 실현
3. 안정적 조직, 공연장 관리체계 구축

Ⅲ. 2018년 주요 업무계획

1 제작역량 강화로 공연 수월성 제고

□ 우수연극 제작으로 수준높은 연극관람 향유 기회 마련

- 국립극단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연극을 제작하여 관객 신뢰도를 제고하고 제작극장으로서의 위상 확립
- 레퍼토리 3편, 고전·명작 및 동시대의 문화·사회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는 참신한 창작신작 3편 이상 소개
- 근현대극 개발 및 인문학적 가치를 기반한 한국고전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작품을 추천받아 선정
 - * 레퍼토리 3편, 창작신작 3편, 젊은연출가전 1편, 근현대극 2편, 고전·해외신작 3편, 청소년극 3편 등 총 15편 자체제작

【 2018년 주요 공연 일정 】

공 연 명		공연장	공연기간	횟수
제작공연	레퍼토리1-3월의 눈	명동예술극장	02.07~03.11	28
	레퍼토리2-가지	백성희장민호극장	02.21~03.18	23
	레퍼토리3-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명동예술극장	09.05~10.01	24
	근현대극1-운명(자문위원회 추천)	백성희장민호극장	09.08~09.30	20
	근현대극2-호신술(자문위원회 추천)	백성희장민호극장	12.05~12.24	18
	세계고전1-성	명동예술극장	03.23~04.15	21
	세계고전2-페스트	명동예술극장	05.18~06.10	21
	해외신작1-록앤롤	명동예술극장	11.29~12.25	24
	젊은연출가전-2센치 낮은 계단	소극장 판	05.30~06.18	18
	창작신작1-얼굴도둑(작가의방신작)	백성희장민호극장	05.11~06.03	20
	창작신작2-전시의공무원	명동예술극장	10.12~11.04	21
	창작신작3-텍사스고모	백성희장민호극장	11.02~11.25	21
	청소년극1-죽고싶지않아	백성희장민호극장	06.15~07.01	15
	청소년극2-사물함(신작)	소극장 판	04.20~05.06	15
	청소년극3-오렌지북극곰	백성희장민호극장	10.11~10.21	10
소계	제작공연 15편			299

* 2018.3.6 2018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국립극단 공연장 특성화 및 차별화

- 명동예술극장은 관객중심의 '레퍼토리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은 작가중심의 '창작극장', 소극장 판은 연출가 중심의 '실험극장'으로 운영하여 예술적 완성도 제고 및 공연장별 특화프로그램 추진

구 분	명동예술극장(558석)	백성희장민호극장(190석)	소극장 판(90석)
특징	대중성, 작품성	창의성, 시대성	개방성, 실험성
프로그램	고전, 명작, 레퍼토리	동시대 국내 창작극	실험극, 창작극

□ 신작 · 창작극 개발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동시대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창작극을 개발함으로써 국립극단 공공성 제고 및 관객 소통영역 확장
 - '백성희장민호극장'을 중심으로 신·중진 작가의 신작을 소개하여 창작극 레퍼토리를 확대
 - <연출의 판>의 신설로 소극장 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실험연극을 개발, 차기년도 신작 후보 검토 ('18년 신규)
 - <작가의 방> 및 <젊은 극작가전>의 지속 운영,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창작신작 개발과 극작가 양성을 위해 <희곡우체통> 사업 추진으로 동시대 탐구를 지향하는 작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창작 희곡의 무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

□ 그룹별 소통채널 구축, 작품성과 대중성 확보 (검토)

- 연극전문가, 일반인 등 그룹별 소통채널 운영, 작품성과 대중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 추진('작품평가위원회', '모니터링단', '서포터즈' 등)
 - 사업별, 특성별 자문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여 작품의 추천, 국립극단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전문성 부여
 - 일반인 소통채널 운영 등 관객의견을 실시간 반영하여 관람만족도 및 서비스 질 제고

□ 시즌단원제 개선을 통한 공공성 제고 및 배우역량 증대

- '15년 도입한 시즌단원제를 개선하여 단원들의 창작역량 강화 및 작품의 질 향상 도모 <선발인원 '17년 20명 → '18년 20명 (유지)>

구분	'17년		'18년
선정기준	만35세~50세, 5년 이상 경력		만45세 이하, 5년 이상 경력
계약방식	매년 선발, 1년간 계약, 재계약 회수 제한 없음	⇒	1년간 계약,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심사위원	실연심사 예술감독 참가		실연심사 전원 외부인사 (예술감독은 1차 서류심사)

□ 연극인 전문교육 내실화

- 공연의 주축이 되는 신·중진 연극인이 주·조연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작공연과 연계한 심화학습 등 교육 전문화
 - 효율성과 참여도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독(가칭)을 기용, 공연연습 시 교육훈련 실시
- 연기자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국내외 전문가 협력하에 전문 연기술 및 연기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 * (주요 프로그램)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 (연계 프로그램) '연출의 판', '희곡우체통', '낭독공연' 등

□ 일반국민과 연극 간 접점 확대

- 일반관객의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해 체험·교육적 공익프로그램 확대 운영
 - 중구청, 명동특구협의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시너지와 함께 명동문화마당을 확대 추진하여 연극 및 생활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주요 프로그램) 백스테이지 투어, 공연읽기, 예술가와의 대화, 명동문화마당 등

□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 확대 및 미래관객 개발 노력

- 공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객석나눔'은 물론 극단의 핵심사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여 문화나눔 확산
- 기업과 개인의 협찬·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푸른티켓(청소년 대상 금액 보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관객인 청소년 문화감수성 향상

□ 유료관객 증대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확대

- 단계별 관객 개발 마케팅 및 전략적 운영 방안 활성화 추진
 - 빅 데이터를 활용한 눈 등 맞춤형 온라인 광고 및 홍보 강화
 - 잠재관객에게 연극 및 국립극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관홍보와 연계한 캠페인 진행
 - 푸른티켓 가격 조정으로 수혜 인원 확대 및 연극작품 가치 제고

□ 청소년극 창작 활성화 및 청소년연극관람 접근성 향상

- 청소년 연극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관객 개발의 파급성을 고려, 청소년극 창작극을 발굴하고, 문화기관, 도서관, 학교 등과 협력하여 가족 커뮤니티 중심으로 연극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 '청소년예술가탐색전'등 청소년과의 다각적인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극 희곡 개발, 연극양식 실험 확대
 - 0세~4세까지 영유아 대상 공연개발을 추진하여, 아이와 어른이 함께 관람하는 가족 커뮤니티 중심의 관객층 저변 확대

□ 국내 연극계와의 소통 · 협력 강화

- 민간 및 공공예술단체의 우수작품 초청, 대관을 통해 상호협력하고 현장 연극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여 한국연극 활성화 기여
 - 민간극단의 <말피의 눈물>, <손님들> 기획초청, 국립극장의 <심청>, <홍보씨> 대관협력 추진
 - * 기획초청 및 대관 ('17년 2편 → '18년 4편)
-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연극인들의 자문, 의견도출의 장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연극계와의 소통 확대
 - 작품평가위원회 (연2회), 근현대극 자문위원회 및 사업별 특성별 자문위원회 신규 설립·운영

□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연 확대

- 작품성과 호평받은 우수작품의 재공연과 지방공연을 연계 기획하여 지방공연을 점진적으로 확대, 전국민을 위한 국립극단으로 위치 재정립 및 지역 문화 향수권 증진에 기여
 -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가지>, <죽고싶지 않아> 3편 추진
 - * ('16년·'17년) 2편 5개 지역 8회 공연 → ('18년) 3편 6개 지역 12회 이상 공연)

□ 해외우수작품 초청 교류를 협력기반 확대

- 한·영 작가와의 국제협력프로젝트를 통한 청소년극 희곡개발 및 공연을 통해 새로운 협업방안 모색
 - '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영국 버밍엄 레퍼토리극장과 공동제작한 <오렌지 북극곰>의 영국 공연(18.11월 예정) 추진
- 해외우수작품의 초청을 통해 작품의 창작방식 공유, 해외유수극단과의 협력기반을 확대
 - '17~18 프랑스 문화원 지원대상작으로 선정된 프랑스<리차드 3세> 초청공연 추진

□ 국립극단 중기발전계획 수립

- 통합 4년차를 맞아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극단의 위상과 역할을 확고히 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경영목표 설정
 - 성과지표 체계 정비를 통해 미션·비전 및 경영전략과 지표 간 연계성 강화

* '17.3월 국립극단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완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이용서비스 편의제고

- 매체 환경 변화, 고객편의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IT시스템 (홈페이지, UI, 매표시스템 등) 개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식 개선을 통한 편의성 확대, 회원 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확대
- 제작공연에 대한 '관객 설문조사' 시행, 관객의견을 실시간 반영하여 관람만족도 및 서비스 질 제고
 - 고객만족도 : 18년 85점 이상 목표('16년 83.5점 → '17년 85.0점 목표)

□ 안정적인 조직·공연장 관리체계 구축

- 관극회원 지속 모색 및 관객 확대, 개인 후원·기업 메세나 유치를 통한 재정자립 향상 노력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무대기술 지원체계 구축
 - 무대인력 직무교육 강화로 단체요구에 호응하는 기술지원 역량을 확보
 - 상시적인 무대점검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여 신속한 상황대처 체계를 확립